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팽나무 군락지와 함께 자연의 운치 드러낸 수준 높은 석공예물

(13회) 명월대와 명월교... 일제시대 마을 주민이 건립

데스크승인 2013.04.14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교는 일제시대에 지어졌다.

이 다리는 제주석(현무암)으로 만든 도내 유일의 홍예교(虹霓橋)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 모양이 무지개(홍예)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 입구에 '소화(昭和) 6년 3월'이라 새겨진 돌비석 3기가 있어 건립연도가 1931년임을 알 수 있다. 다리 길이는 5.2m, 폭은 6.1m로 작은 편이다.

이 다리는 제주향교 도훈장(導訓長)에 이어 마을 향교훈장을 지낸 오인호 선생(1849~1928)과 그의 아들 오진규의 학덕을 기려 제자들이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명월리에서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는데, 한림뿐만 아니라 애월·한경지역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1917년 문하생들은 오인호 선생의 덕을 기려 명월대 서쪽에 비를 세웠다.

명월교는 명월천의 울창한 팽나무 군락(제주도기념물 제19호)과도 잘 어울리는 수준 높은 석공예물로 꼽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수백 년 전 팽나무를 심었다고 전하고 있다. 예로부터 '건천(乾川)에 나무가 없으면 재해가 일어나 빈촌이 된다'고 하면서 재해를 막기 위해 명월천에 팽나무를 심었다.

수령 300~500년이 된 팽나무는 64그루가 군락을 이루면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은 팽나무 보호를 위해 '종수감(種樹監)'이라는 직책을 두었다. 마을 향약에는 '팽나무 한 줄기, 한 잎이라도 손상시킨 자는 목면(木棉) 반필을 징수한다'는 규약을 담고 있다.

이 다리는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많은 비가 내리면 물이 넘치고, 차량 통행에도 불편해 고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다리 주위의 팽나무 보호 차원에서 82년 동안 원형이 보존돼 오고 있다.

명월대(明月臺)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와 풍월을 즐기고, 장기와 바둑을 두던 자리에 1930년 명월리청년회가 축조했다.

3단 축대의 맨 아래 기단은 사각형, 다음은 육각형, 맨 위는 원형으로 현무암을 다듬어서 쌓았다. 맨 밑 기단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4.9m다.

명월대에는 '명월대비(明月臺碑)'가 세워졌는데 호남의 명필로 명성을 떨친 연농 홍종시 선생(1857~1936)이 비문을 썼다.

그는 1894년(고종 31년) 제주관찰부의 주사 및 제주지방재판소의 판임관으로 관리 생활을 시작하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그만 두었다. 1931년 제주면이 제주읍으로 승격되자 초대 읍장이 됐고, 1934년 78세의 나이로 물러났다.

한편 명월지역은 예로부터 군사 요새이자, 서부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다. 명월포는 1270년(고려 원종)에 삼별초의 별장 이문경이 고려에서 파견된 관군을 진압하고 제주를 점령할 때 상륙한 곳이다.

1300년(고려 충렬왕)에는 제주를 동·서로 나눠 14개의 현(縣)을 둘 때 명월현이 설치됐다. 1608년에는 현촌제를 폐지하고 방리제(坊里制)가 실시되자 명월은 우면(右面·지금의 애월·한림·한경)의 소재지가 됐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